

- 녹음일시 : 2020. 10. 30.(금) 오후 9:30
- 녹음장소 : 분당 정자동 ■ 노래방(지하)
- 대 화 자 :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김 만 배 객관적으로는 저 (...) 안 되는 거야.

남 자 어서 오세요.

유 동 규 화장실 어딥니까? 화장실 어디예요?

여 자 화장실요?

김 만 배 방 하나 줘요.

여 자 3번방 들어가시면 돼요.

김 만 배 3번 방?

) 유 동 규 방안에 화장실 있나요?

) 여 자 예, 예.

) 유 동 규 3번?

여 자 예.

김 만 배 아 예. 이리 와보세요. 담배 안 피워.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담배 안 피우신대.

정 영 학 아 예.

(문 여닫는 소리)

김 만 배 공통비를 너무 많이 냈다는 주장이야, 남육이가, 응?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래서 나는 그거지. 그 저..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거 받은 내라. 아니면 지분대로 해야 된다. 응? 그 얘기는..

정 영 학 저 화장실 잠깐.

김 만 배 응.
만원짜리도 있어.

정 영 학 예.

(물 내리는 소리)

정 영 학 잘 지내셨습니까?

유 동 규 아이구. 잘 지냈어요?

정 영 학 네.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유 동 규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정 영 학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 동 규 그래도 잘 견뎌내서 다행인데, 잘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예전에는 어떡하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정 영 학 하하.

유 동 규 옛날에 처음에 (...) 어떡하면 될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 돈 문제는 없었는데,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이제는 다 되고 나니까 전부가 이제는 돈 문제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가 안가는 게,

김 만 배 형이 먼저 얘기할게.

유 동 규 형님, 조금만..

김 만 배 그래.

유 동 규 나는 이 공동비가 있으면 공동비 정리하고, 나중에 그 지분대로 각자 배당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인제 먼저 배당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애.

그러니까 이 공동비를 갖다가 어떻게 책정해서 얼마를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나머지 다 배당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인제 괜히 뭐 저기 뭐야, 배당 먼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다 이 영역이 다 내 영역으로 보이고, 그런데서 자꾸 그런 싸움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애.

김 만 배

자, 인제 내가 얘기할게.

처음에 인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다 슬기롭게 정리를 했어.

유 동 규

네, 네.

김 만 배

왜 정리를 했냐면, 여기 A12에서 큰 구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고, 그다음에 A1, A2, 그리고 A..

(똑똑~)

김 만 배

네.

)

남 자

주문 도와드릴까요?

)

유 동 규

아니 저기, 음료수 있잖아요, 시원한 것 좀 갖다 주세요.

남 자

이온음료하고 물 종류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김 만 배

과일도 하나 주세요. 과일도.

유 동 규

과일도 하나 주시고요.

남 자

맥주는 필요 없으시고?

김 만 배

예. 라떼만 주세요.

유 동 규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 자

아, 예.

유 동 규

제가 그 술을 안 좋아해서..

남 자 아, 그래요?

유 동 규 예. 저기 그, 이온음료.

남 자 그럼 몇 개 챙겨드릴 테니까 남는 건 반납하세요.

김 만 배 난 따뜻한 커피.

남 자 따뜻한 커피요?

김 만 배 캔 커피.

남 자 캔 커피요?

김 만 배 예.

남 자 드릴게요. 프림 들은 거 좋아하세요?

김 만 배 아무거나 뭐.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남 자 예, 알겠습니다.

김 만 배 자. 그리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른 이견은 없어.
그리고 인제 뭐냐면, 이 정재창 부분은 원래 70억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남욱이가 50억 내고 영학이가 20억을 내기로 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처음에 이게 선공제, 후정산인 줄 알고 내가 내기로 했던 건
맞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못 낸다 해가지고 했는데, 영학이가 얼마를 냈
냐면 60억 플러스 30억을 냈나?

정 영 학 예. 90억 다.

김 만 배 90억 내고.

유 동 규 누구를요?

김 만 배 재창이한테.

유 동 규 90억을 왜 준 거예요?

김 만 배 아, 그 새끼 협박하니까.
그리고 남욱이가 50억 내기로 한데서 10억을 더 내서 60억을 낸 거야.

유 동 규 그런데 왜 협박을 해요?

김 만 배 자기 지분이 있다 이거지. 자기는 고생했는데 왜 안주냐 이거지.
그런데 처음에 70억을 왜 주기로 했냐면,

) 유 동 규 지금 이미 돈이 넘어갔어요?

) 김 만 배 넘어갔지. 애네들 돈이 넘어갔지.

유 동 규 어떤 명목으로 넘어갔어요?

정 영 학 아, 그..

김 만 배 배당으로 갔지.

정 영 학 예. 그냥 이익 분배하는 걸로 해서.

김 만 배 애네들 이익을 분배했어.

유 동 규 분배로 해서 넘어갔다고요?

정영학 예.

유동규 거기서 세금 냈겠네요?

김만배 그럼, 다 냈지.

유동규 그게 가능했어요?

정영학 예. 세금 내고 90억 부담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백4~5십억 준거죠.

김만배 따뜻한 커피?

남자 예. 세 개 했어요.

김만배 예. 그럼 됐어요.

자, 그래서 애네들이 그렇게 부담을 했어. 응?

그리고 이 돈 나간 거는 남욱이는 뭘 나갔냐면, 이기성이한테..

내가 이기성이가 돈 빌려온 거.. 잘 생각하고 얘기해.

이기성은 남욱이한테 36억인가 한 40억 가까이를 줬대.

그런데 너랑 나랑 받은 돈은 위례 것까지 포함해서 8억3천이야.

인정해, 안해? 아니 뭐 얘기 안해도 돼.

그런데 나머지는 남욱이가 썼어. 조우형이랑.

그런데 이 그 뭐야, 내가 100억을 내가 빌려서 줬어. (노 이기성)

그리고 이기성이한테 또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한 20억 넘게 해주고, 또 요

번에도 또 해주고. 그런데 남욱이도 인제 한 15억씩 해줬어.

그런데 본인은 뭐 몇 백억이 세금으로 나갔.. 아니, 비용으로 나갔다고 그

러는데, 나는 모르겠어. 개가 비용으로 나간 건.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면 직원들의 인건비 인제 상여금..

직원들도 비밀을 아는 애들이 많잖아. 그럼 개네들을 뭘로 막을래?

돈으로 막아야지.

그래서 대표이사 120억, 양완범 전무 50억, 뭐 상무들 15억,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한 280억정도 돼. 맞지?

* 6차 24
이기성 → 남욱
50억

유동규

남욱

정영학 네.

김만배 그런데,

유동규 직원이 몇 명인데 280억이나 돼요?

김만배 열여섯 명.

유동규 열여섯 명이나 돼요?

김만배 응.

유동규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열여섯 명이나 돼요?

김만배 열여섯 명 풀었어. 내 말은. 그런데 그 저 이..

유동규 열여섯 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만배 대표이사 이성문, 전무, 상무, 그 도시개발 상무 하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상무 하나, 경영실장 상무 하나. 그리고 감사 저 창근이형 후배 이한성 상무 하나, 내 동생 처음에 명의로 들어왔던 애 하나. 그다음에 경리부장 하나, 경리차장 하나. 그다음에 주택전문 부장 하나, 도시계획 전문 부장 하나. 실무 일하는 애들.

유동규 예.

김만배 그다음에 저 누구야.. 곽상도 아들 하나, 박수현이 그 박영수네 하나.

유동규 예, 예.

김만배 그다음에 저 이.. 그래서 열여섯이야.

자, 그래서 해결했어. 그러면 내가 공동비에서 받을 내. 그러면 너는 280억에서 50억을 저쪽에 위에서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제하면은 그거..

KM Partners

(+)MSBT

유 동 규 280억으로 일단 애들 준다?

김 만 배 그렇지. 그런데 50억은 PM 수수료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받은 형이 내고, 받은 애네들이 낸다 했어.
영학이는 16%뿐이 안 되는데 본인이 반 낸다고 그런 거야.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아니, 흔쾌히..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어. 50억 들어와 있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50억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나머지 욕이도 60억 내면 돼. 그러면 아무 상관
이 없어. 그런데 그거 안 낼라고 지랄하는 거야. 너한테까지.

유 동 규 그런데, 그냥 보고서 이야기할게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남욱이를 만나서 남욱이한테 '너가 지금 불만이 뭐냐. 너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를 물었더니, 물어보니까, '자기는 낼 거를 다 냈다고 생각한다. 난 낼 걸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궁금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많이 안 되고 인블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정 영 학 사실 뭐 강요를 떠나서,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했

습니다. 사실 뭐.

유 동 규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정 영 학 예.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유 동 규 왜냐면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면은,

정 영 학 예.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 그 금액으로 다 배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유 동 규 재떨이 없나요?

남 자 아. 갖다 드릴게요.

정 영 학 성과급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뭐 실은 형님이 결정하신 거고. 그게 실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집행이 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김 만 배 아니, 거의 많이 나갔어.

정 영 학 네, 네. 아니, 그 인센티브.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다음에 다른 건 다 놔두고, 그냥 비용 다 놔두고, 인센티브만 건자가 된거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만 건자.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그거야 뭐.. 다 떠나서 인센티브만 건자. 인센티브를 누구 얼마주고 누구 얼마주고 누구 얼마주고에 대한 거가 좀

뭐 과하다 적다 이걸 떠나서, 실제 지급이 되느냐 라는 걸 보면, 지급이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실제성은 있지 않겠냐.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다 싶어서, 저는 뭐 이왕 집행할 거 빨리 주시죠, 인센티브. 해갖고 저는 당연히 집행했구요.

유 동 규 지난번에 그 저기, 30억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형님? 30억.

김 만 배 이기성.

유 동 규 아, 그분 얘기를 한 거였어요?

김 만 배 응. 이기성이가 그런 거지. 삼호D&C에 진짜 30억을 빌려왔는지 안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삼호D&C 회장은 형한테 이기성이한테 33억을 빌려줬다고 하고,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그리고 또 지인한테 돈을 빌려왔다고 해서 안 갚으면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협박이 시작된 된 거지.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상의를 하더라고. 기성이가.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는데..

형이 자, 이만큼 낼 테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내게 할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지. 그렇게. 형 혼자 낼 수 없으니까.

이기성이 돈은 영학이는 안 썼으니까. 응? 우형이랑 너랑 썼으니까 형이

형도 이만큼 낼 테니까 니네 15억, 15억 내.

그러니까 못 낸다고 했던 거지.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 남옥이 너 15억 내. 우형이는 돈이 없어서, 그럼 형이 빌려 줄게. 응? 빌려줄 테니까 너는 10억만 내. 나머지 15억은 형이 정산을 할 게.

이기성.
↑

* 13차 7쪽
김만배 → 이기성
120억 지급
* 13차 15쪽

- 11 -
남옥 15억
조우형 10억
(김만배 리미)
김만배 15억
→ 이기성
총 45억

그래서 기성이한테 미리 형이 그 돈 받으면 까주라 그래서 빌려줬지. 돈을 상당부분. 100억 말고. 응? 그래서 그거야. 돈은. 그런데 기성이가 거기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남욱이한테 어떻게 사실관계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뭐 형이 삼호D&C의 장부를 안 봤으니까 33억을 빌렸는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기성이가 30억을 내고, 형님이.. 그러니까 기성이가 15억을 내고,

김 만 배 누가?

유 동 규 기성이가 15억을 냈는데, 남욱이가 15억을 내야 30억이고,

김 만 배 기성이는 안냈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기성이가 형님이 빌려줘서 15억을 내고.

김 만 배 조우형이가.

유 동 규 조우형이. 조우형이가 내기로 하고,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이제 조우형이 내고, 남욱이가 15억 내고, 그러면 30억이고, 형님이 그때 30억을 내 갖고 60억 냈잖아요.

김 만 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30억. 45억인데,

유 동 규 아, 총 45억이에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총 금액이 45억인데,

김 만 배 45억인데, 남욱이 15억 조우형이,

유 동 규 15억.

김 만 배 15억인데, 10억만 내라. 돈이 없다니까. 형이 빌려주마.

유 동 규 예. 빌려주마 그래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형이 30억을 낸 거고,

김 만 배 그렇지.

) 유 동 규 그다음에 남욱이가 15억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 김 만 배 응, 응.

) 유 동 규 남욱이 15억을 냈는데.

) 김 만 배 실질적으로,

유 동 규 형님이 30억을 내신 게 맞아요?

김 만 배 낸 거 맞지. 미리 빌려줬는데 그거를 갚으니까 인제.

유 동 규 아, 우형이한테?

김 만 배 아니, 기성이한테.

유 동 규 우형이 아니라, 기성이한테?

김 만 배 응. 아직 4억 남고.

유 동 규 이기성한테?

김 만 배 응,응 4억 남고. 그건 장부가 해결해. 우리 회사의 장부가.

유 동 규 그때는 이미 그건 형님이 30억을 빌려줬던 거예요?

김 만 배 30억을 빌려준 게 아니라, 18억하고 4억을 빌려줬으니까 22억이 나갔지.

유 동 규 22억 나갔으니까, 형님이 그러면 22억에서 기성이한테 결국은 그거를 22억을 빌려줬는데,

김 만 배 응. 아니 그거를 네명한테 다, 세명한테 다 받으면 이 삼호 김원식이 돈 갖고, 남는 돈은 그러면 형한테 갚아라 하면서 빌려줬지. 얼른 얼른 해결을 해. 자기 자살해야 된다고 하니까.

유 동 규 그러면 이게 이기성이가 결국은 형님한테 22억은 언제 빌려갔어요?

김 만 배 그 당시에 빌려갔지. 그 협박하고 막 그럴 때.

유 동 규 그러니까 그 빌려간 게 22억인 거예요?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러면 남옥이가 온 15억은?

김 만 배 15억은 이기성이가 삼호D&C 회장님 갖고,

유 동 규 갖고. 그러면 22억 플러스 15억인 거네 그러면? 총 금액이.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면 37억이네?

김만배 응.

유동규 37억인데, 원래 45억이라면서요?

김만배 아니 그런데 우형이가 15억 내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10억만 한거지.

유동규 그러면 개가 10억 내고, 형님이 15억 내고, 남욱이가 15억 낸거다?

김만배 응, 응.

유동규 그러니까 형님이,

김만배 우형이는 하나도 안 내고 형이 회사 돈으로 내고,

유동규 22억을 형님이 낸 거다 이 말씀이에요?

김만배 그 돈을 기성이가 우리 회사에 갚은거지 또.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니까 기성이는 형이 볼 때, 우형이한테 욱이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 나 사실 쓴 거 없어. 형네 회사한테 빌린 거 갚았어, 이렇게 했겠지.
갚다, 이렇게 했겠지.

유동규 그런데 남욱이는 저 혼자 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김만배 아, 그건 아니지.

유동규 결국은 자기 혼자 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은.

김만배 아니, 뭘 저 혼자 내?
아니 그러니까 기성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왜냐면, 그 당시에 기성이의 내용증명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형이 돈을 이
렇게 이렇게 걸어서 해줄게. 응? 걸어서 해줄게. 단, 자 45억 40.. 이렇게

이기성 [(주)더샵, 대문이다]

하는데, 이것을 다 안 받고 나중에 40억이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를 하자 해서 형이 돈을 빌려줬지, 미리.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유 동 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명확하게 서로 간에 전달이 되면, 의사소통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해들이 있었고, 좀 쌓이고, 그런 것들이 또 자꾸 불씨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형님.

김 만 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했어.
돈을 다 정리했는데 3일 있다가 남욱이한테 찾아갔대. 기성이가. 찾아가서.. 왜냐면 돈을 다 걷어서 줬는데, 나도 줬어. 왜냐면 예산은 빌려간 걸 제한 게 아니라, 우선은 돈을 아니 저 기성이하고, 돈은 개네들이 주고, 아니 저기 남욱이 돈은 직접 주고, 우형이 돈은 형이 우형이한테 줘서 주게 하고, 형 돈은 모아, 형 돈까지 모아서 우형이가 주게 했어. 그런데 형한테 이걸 받으면 갚기로 하고 그 시기에 형이 먼저 빌려준 돈이 있잖아. 그 돈은 돌려받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이해해?

정 영 학 뭐, 할 말 한번 해보시면..

김 만 배 아니,

정 영 학 전체 금액이..

김 만 배 전체 금액은 맞는데, 미리 이게 해결되면 형한테 갚아라. 그러면 형이 줄 테니까. 니가 그렇게 뭐 죽겠다 뭐한다 협박 받는다 이러니까, 너 좀 까라 하고 형이 회사에서 줬잖아. 이만큼을.

유 동 규 예. 22억.

김 만 배 22억을 줬지.
그런데 22억을 줬는데, 남욱이한테 15억을 받고, 우형이한테 형이 우형이한테 보내서 우형이가 25억에다가 형 돈에서 45억인가 얼마를 맞춰줬지.

맞춰줬는데, 15억을 뺀 30억을 형이 돌려받았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 예상이 있으니까. 30억인가. 22억을 줬어. 22억을.

유 동 규 22억을.

김 만 배

4억은 못 받고.

↑ 이기성
그런데 기성이가 남욱이한테 찾아가서 그랬대. '돈을 더 빌려달라'
그러니까 '왜 돈을 더 빌려주냐?' 그랬더니, '만배형한테 빌린 걸 갚았다' 그렇게 했다.

유 동 규

예. 그래서?

김 만 배

응.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온 게 15억인가 20억뿐이 없다.

유 동 규

그러니까 결국은 내 돈 밖에 안 들어갔네..

김 만 배

이렇게 된 거지.

유 동 규

남욱이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김 만 배

아니, 너도..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남욱이 입장에서 보면, 기성이 말 들어보면, 어? 그러면 결국은 돈 낸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그 형님이 돈 낸 거를, 미리 준 걸 갖다가 그거는 빠져버리게 된 거니까. 개네는 그걸 모르는 거네. 형님이 22억 준거를.

김 만 배

기성이가 얘기했다는데 왜? 기성이는 나한테 했다고 그랬는데.

유 동 규

회사가 돈 돌려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김 만 배

아니, 빌려줬으니까 돌려받지. 그런데 아직 4억은 안 받았어.

저 뭐, 8월인가 언제 준다고 그러더니. 9월인가.

유 동 규 아직 안 받았다?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러니까 그 관계를, 관계가 (...)한다면 원인행위가 빠지고 나머지 그것에 대해서 파생된 행위 가지고만 서로 오가니까, 거기서 이기성 말만 들으니까. 이기성이 와가지고 '나 그 돈 받아갖고 돌려줬어' 이 이야기만 들으니까.

김 만 배 아니, 무슨 돌려줘? 빌린 거 줬다고 그랬다는데.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형님한테 돌려줬다고.

김 만 배 아. 형한테 22억하고 회사에 빌린 걸 해서 줬지.

유 동 규 그러니까 그거를 형님한테 돌려줬다고 그러니까, 개는, 개는 그러니까..

김 만 배 회사에. 무슨 말인지 알지?

유 동 규 음, 음.

김 만 배 그런데 아직 사업, 계획적인 사업은 안했지. 왜냐면,

정 영 학 형님도 실제 부담하신 거잖아요?

김 만 배 했지. 부담했지.

정 영 학 왔다 갔다 하고 빌려준 거 갖고 이런 게 있으니까.

김 만 배 응, 응. 내가 기성이 돈을..

유 동 규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인제 이 사람하고의 어떤 채무관계로 그 부분을 갖다가 상쇄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나갔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걸 빼놓고 여기서는 아까 그거 받은 거 돌려줬어 이러니까,

김 만 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하면 내가 돈 빌려준 거를 받을려고 그렇게 한 걸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성이는 우리 회사에 빚이 있었고, 정상적인 빚. 우리가 준 돈 말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빚이 있었고. 그리고 D&C의 압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주마. 애들이, 그런데 애들은 아직 동의 안 되고, 우형이는 동의한 상태였어.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마. 그래서 형이 선 집행해줄게. 우형이 돈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준 거야. 응?

유 동 규 예.

김 만 배 무슨 말인지 알지? 빌려줬어. 그래서 본인이 해결하고 남욱이한테 15억 받고 이럴 때, 형은 또 빌려준 돈 말고, 남욱이한테 그 돈을 맞춰줄려고 기성이한테, 우형이한테, 우형이 돈하고 형 돈하고 보냈어. 보낸 다음에 그 전에 이미 집행해준 돈을 받아서 회사에도 갚고 그렇게 했던 거지.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인데, 그거를 갖다가 차포 다 떼고 이야기하면 형님이 그 저기..

김 만 배 남욱이 돈만 받은 걸로 되지.

유 동 규 남욱이 돈만 받은 걸로 돼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김 만 배 기성이가 그렇게 얘기했다.

유 동 규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김 만 배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정정을 해라, 너.

유 동 규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가 이게 해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당하게 내야 될 부분 같이 내고. 그리고 사실 많이 벌었잖아. 벌었으면 어느 정도 낼 건 서로 내고. 그다음에 형님, 제 생각은 그래요. 형님.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예를 들어서 반반씩 부담하자가 아니라, 지분율대로 부담하면 될 것 같아요. 지분율대로.

김 만 배 그러면 내가 애 돌려줘야 돼. *정영학*

유 동 규 돌려주더라도. 일단 뭐냐면,

김 만 배 응? 그지?

정 영 학 지분율대로 했으면 정재창이 것도 제가 90억씩 부담할 필요가 없죠. 감정적으로 한 걸 워낙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부담을 해준 거고. 이건 정재창이 것 비율대로 분할했으면 제가 90억이 아니라 한 30억 했죠.

김 만 배 형이 많이 내.

정 영 학 여태까지 그거는 육이도 지가 부담한 게 하도 많다 하니까, 공통비나 이걸 쌓아가지고..

김 만 배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어, 육이한테. 뭘 부담했어? 여기서.

유 동 규 뭐라고 대답했어요?

정영학 그걸 제가 어떻게.. 저도 잘..

김만배 너한테 얘기했을 것 아니야?

유동규 아니, 난.. 저는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면 나는 거기에서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를 들면 내가, 문서를 가져와서 전체 맥락을 갖다가 보여주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보겠지만,

김만배 나한테 이상락 위원장도 몇십억 줬다 뭐 했다 이러는데, 이상락 위원장은
돈 없다고 회사에 와서 맨날 그래. 응?

정영학 아니 뭐, 일정부분 부담한 건 있습니다. 이상락 위원장 부담한 것도 있고,
현장 정리하면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을 이쪽으로 충분히 해준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영학
공통비도 사실 형님이 저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김만배 그랬더니, 본인이 반을 낸다고 그랬어, 육이가.

정영학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야 저야 그냥 싸우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부담해
라 하니까 부담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공통비로 치면 저는 비용이 너무
크죠. 사실은.

김만배 그래. 이 비율대로 하면 애는..

정영학 비율대로 하면 저는 좋겠습니다. 정재창이 것 뿐만 아니라, 공통비뿐만 아
니라 전부 다.

김만배 그런데 이거야.

정영학 저는 사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만배 옥이는 유리할 때는 비율, 불리할 때는 빠지고.
물어봐. 니가 자세히 이따 들어봐.

유동규 그러면 지금 남옥이를 오라고 하죠. 한번 통화해갖고요. 남옥이 끼어갖고,

정영학 저는 그냥 지난번에 공통비 부분도 있고, 남 변호사 세금부분 도와달라 했는데 그냥 좀 하도 심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안 도와준 것도 있고. 오늘은 그냥 형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빠지고요.

김만배 그래. 니가 영학이 얘기 들었으니까.

유동규 아니, 같이 모여서..

정영학 아니, 그냥 이야기하시고. 저는 비용부담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김만배 왜냐면 서로,

유동규 아니, 더 간 거는 돌려받고.

정영학 그냥 저는 납부하고 조용히 있을랍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 뭐..

유동규 아니 그러니까 더 낼 것도 없고, 오히려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정영학 지난번에 남옥이가 요구한 게 공통비 저한테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한테. 저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만배 나는, 이렇게 해도 돼. 남옥이가 처음에 약속한 반을 내면 돼. 60억.

김이에게 부담 강은분 지출(예외)액

	정액상 150억		공동비 120억	
	남은	정액상	남은	정액상
지분비율 때문	120억 [=150억 × $\frac{5}{7}$]	30억 [=150억 × $\frac{2}{7}$]	80억 [=120억 × $\frac{25}{25+16}$]	40억 [=120억 × $\frac{16}{25+16}$]
실제 부담	60억	90억	60억	60억
차이	⊖ 60억	⊕ 60억 (추가부담) 라다	⊖ 20억	⊕ 20억 (추가부담) 라다

정영학

그러면 끝이야. 애는 이미 냈어. 응? 형이 120억 내고. 응?
그래서, 우선 들어. 애가 보기 싫다니까.
남욱이 세금 처리 뭐, 이상하게 자기 앞으로 공제를 안해주겠다 해서 뭐
한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이 회삿돈을 갖다가 썼는데 그걸 세금
으로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해줘? 그런 부분인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거 아냐?

남욱

정영학 일단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몰랐대요.
그다음에, 공통비는 사실 알고 보면 남 변호사 본인도 많이 부담한 것 같
지만, 저는 비율대로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보다 훨씬 많이 부담을 했고.

유동규 원래 몇 퍼센트예요?

정영학 저는 16입니다. 16.

김만배 19에서 4% 뺀거지.

유동규 누구한테요?

김만배 형이. 처음에.

유동규 19에서 16 같으면 3%네요?

김만배 응, 응. 3%.

정영학 원래 정재창이 비용도 원래 5:2거든요.
155억 늘어났 으면 5:2 비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코너에 몰려서
5:2가 아니라, 90:60으로 바뀐 거고요.
사실 150대에 5:2면 7분지 2이기 때문에, 저는 내뱉야 30억인데 90억을 낸
거고. 공통비도 그러면 나머지 110. 120억 중에 25:16으로 내면 저는 40억

뉴스라파

뉴스라파

만 내면 되는데 60억 내가 했고.
그렇게 양보도 다 하고 그냥 잘 마무리 하자 이렇게 가고는 싶거든요.
그런데 남변호사 이야기는 좀 더 부담을 해달라. 공통비를. 아니, 전체를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건 형님한테 이야기하실 내용이시, 제가 부
담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형님이 뭐..

김 만 배 내가 얘기해줄게. 아니, 영학이는 가만히 있어.
왜냐면 영학이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금융기관 사람들. 약속한 사
람들. 형이 다 확인해서.. 그래서 영학이가.. 남욱이는 몰라.
남욱이가 알면 남욱이는 떠들어서..

뉴스라파

뉴스라파

정 영 학 아니, 그건 저는..

김 만 배 그런데 애는 그냥 알아서..

정 영 학 부담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몽주**

김 만 배 그래서..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남욱이는 부담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
는 민용이하고 몽주뿐이 없어. 그지? 이 사업과 관련된 거는.

성인용 ← 그거는 다 나머지는 지아버지 돈 싸움하는데 100억 물어주고 뭐 해주고,
지가 빌려왔던 돈이야.

민용 그리고 김우희한테 얼마 주는 것도, 그것도 사업에 지 지분을 유지하기 위
해서 빌려와서 썼던 돈이야. 그렇잖아? **→ 김만배.**

그런데 성공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거는 형이 누구한테 해주듯이, 그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말았던 방어에 방위에서 몇명이 있지. 그런 부분들
이 존재해.

그런데 욱이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형한테 존재하는 증명을 한 적이
없어. 그렇잖아? 응? 그런데 25%나 돼, 지분이. 최고 많아.

그런데 우리는 50%에 상당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어. 응?
애는 16%인데 그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남욱이도 출현을 해야지. 안할 수 없는거야. 이걸 피해갈 수 없어.

김만배 + 유동주.

뉴스라파

뉴스라파

유 동 규 그건 아니, 제가 뭐 피해가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김 만 배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야.

유 동 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 만 배 맞아, 안 맞아? 형 말이.

정 영 학 네, 네. 이거는 이미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옛날에 이걸 일 단락이 됐거든요. 일단락이 다 됐고. 그렇게 하기로 됐고. 그다음에,

유 동 규 그런데 왜 못 내줬다는 거야? 일단락이 됐는데.

김 만 배 아니, 개 생각이지.

개는 천화동인1이 저.. 소송을 하겠다는 거지. 차명으로 자기앞 건데.

유 동 규 그렇게 생각해요? 남옥이가?

정 영 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 동 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 만 배 그거지 뭘. 형은 그거라고 봐.

유 동 규 아니 그런데, 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왜냐면 애초부터 시작할 때 다 정리 된 건데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정 영 학 그건 소송 대상도 아니고 말도 안 됩니다.

유 동 규 소송 대상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뭐 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면,

김 만 배 아니, 만배형이 혼자 먹을까봐 그랬대매?

유 동 규 아니, 60억. 그 60억을. 60억이 자기는 납득이 안된다. 그 이야기한 거라고 본다. 그 이야기더라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 됐는 건데, 왜 일단락되고 정리 다 된 건데..

정 영 학 아니, 처음에 남욱이는 120억까지 제가 부담을 해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그냥, 그것까지 저도 부담하기는 좀..

김 만 배 아니, 나도 아니라고 봐. 나도 애보고 '씨팔, 니가 내' 이랬는데.

정 영 학 아니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유 동 규 그건 아닌 것 같애.

김 만 배 그런데 왜냐면,

정 영 학 형님이 저한테 화나신 이유는, 배당구조. 왜 선배당을 하도록 했냐. 니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김 만 배 그래서 화나서 그랬던 거지.

정 영 학 아니, 솔직히 니가 다 배당, 먼저 선배당 구조를 니가 구조를 짰기 때문에, 공통비 니가 다 부담해. 사실 이게 인제 형님의 요청사항이고, 남 변호사는 그 말대로 해,가 남 변호사 요청사항이고.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요.

김 만 배 응, 그래.

유 동 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 영 학 예. 그것 때문에..

유 동 규 그거는 공동의 부담이지, 한 명이 부담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정 영 학 공동의 부담인데 남 변호사는 만배형이 그렇게 부담해라 했기 때문에 형이 한 거고, 내가 가서 구제해준 거고.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하도 부담이 많다 하니까 반 부담을 해준 거고.

김 만 배 그리고 참, 내가 물어볼게, 동규야. 남욱이 지분이 왜 25%지?

유 동 규 남욱이 지분요?

김 만 배 응. 26%. 왜? 왜 애하고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개 지분이..

유 동 규 아니요. 처음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형님 말씀대로 19%.

김 만 배 응,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29% 천화동인1.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다음에 형님이 그때,

김 만 배 10 몇%.

유 동 규 10 몇 퍼센트. 그리고 남욱이가 27%인가 26%,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죠?

김 만 배 아니, 조우형이 것도 원래 남욱이 꺼였었지.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조우형이 것도,

유 동 규 원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네명 것만 했었죠. 우리 증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파생돼가지고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죠.

김 만 배 조우형이 7%도 남옥이가 달라고 그래서 준거지.
그런데 나중에 남옥이가 징역 간..

유 동 규 7%를 누구한테 내준 거예요? 누구 거에서 7%를 준 거예요?

김 만 배 전체 거에서 나눠서 줬지, 개.

유 동 규 전체 거에 7%를 줬다고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7%를..

정 영 학 견어서 준 거죠.

김 만 배 견어서 줬지.

유 동 규 견어서 준 거라고요?

김 만 배 응, 응. 10%를 뺐지. 10%를.

정 영 학 사실 이 정도면 큰 비용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용 부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감정싸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유 동 규 감정싸움 같아요, 나도.

정 영 학 예, 저도 그냥..

유 동 규

그래서 나는 왜냐면, 이게 잘 정리돼서, 잘 정리되고.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할 때 그랬다면서요. 마지막 건 가지고 왔다면서요. 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위례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인제 별만큼 벌어왔고, 다음을 위한 씨드머니도 다 준비되고 이랬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왜 더 받고 싶어서, 남의 금 넘어오고 뵈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지. 애석하다.

김 만 배

그런 정무적인 얘기 하지 말고, 형이 영학이 있는 데서 다 얘기할게. 내가 영학이한테 화나서 공통비 직원들한테 가는 280억 중에서 반..

정 영 학

다 부담하라 했죠. 분배를 선배당 구조로 해서.

김 만 배

응. 니 짚으니까 해라. 너 120억 내, 이 새끼야. 이려고서 했어.
한 거 맞아. 그런데 내가 어거지라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본인이 낸다고 그러면서 남욕이가 반을 낸다 그랬어.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자기도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면 돼. 아무 이상이 없어. 그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면 되는데.

정 영 학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정재창이 것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제가 부담을 한 거
잖아요.

김 만 배

응, 응, 응.

정 영 학

그거는 인제 뭐..

김 만 배

내면 돼.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무슨 뭐 저만 내느니 뭐니..
그런데 개는 비용을 어디 부담하는 게 없잖아. 공동사업에 의해서.
개는 내 전화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전화해도 소용없어.

유 동 규

제가 부를게요, 형님. 불러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김 만 배

지금 들은 이야기 그대로 물어봐.

유 동 규

아니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나오면 또 난 그 배경을 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번 저기..

정 영 학

그럼 하시고, 저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유 동 규

아니, 형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따로 날짜 잡아서.

정 영 학

저는 지난번에 하도 코너에 몰려서, 이제 더 이상..

김 만 배

그래. 이제 너는 가. 왜냐면,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러서 하겠다는 거 아니구요, 나중에 한번 저기,
니가 할 이야기 있으면 형님 앞에서 직접 해라. 그리고 형님 앞에서 직접
해가지고 그것이 온당한지 안한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니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 혼나야죠.

정 영 학

직원들 인건비는 줘야죠.

유 동 규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정 영 학

그게 좀 많다 적다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있겠지만,

유 동 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가,

정영학 그건 형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유동규 예. 결정할 문제죠.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정영학 네, 맞습니다. 네.

유동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문제없이 끝나는 거죠.

정영학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직원들 기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으면 사고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기대가 이미 다 있어서 적게는 어렵습니다.

유동규 아 그러니까 공동비 계산할 때 저녁에 세 개.. 아침에 세 개 준다고 그래 놓고 두 개 주면 저녁에 세 개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삼모사도 있듯이, 그건 뭐냐면 말 뺄으면 그건 지켜야 됩니다.

정영학 맞습니다. 안 그러면 사고납니다.

유동규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한 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정영학 진짜 바라는 거는 다들 결과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유동규 그런데 사공들이 너무 많아졌네요. 나 모르는 사이에.

김만배 사공이 아니라 다 필요한 인원이지.

유동규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공이 돼 버렸잖아. 필요한 인원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돼 버렸다 이거죠.

김만배 필수요원이야.

*13차 2쪽

개인적은 공모사업 참여 X

유 동 규 필요요원들이 요원이 됐어야 되는데, 사공이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

김 만 배 그리고 인제 하면서 너무 많이... → 성남도서관

유 동 규 우리, 우리 안에서는, 안에서 필수요원들, 안에 있는 필수요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잖아요. 왜? 사공을 안 만들었거든요.
한명도 사공을 만들지 않았는데, 바깥에서는 사공들이 많아졌어.

김 만 배 아니,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있어야지, 어떻게 해.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김 만 배 비밀이 어떻게.. 안돼.

유 동 규 그리고.. 아니요. 비밀이 지켜지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야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두고두고도 이거는 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너무 지금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행동이 좀 가벼웠다.
그리고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건 참 애석한 일이다.

김 만 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안거지.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걸로 알아.

유 동 규 ← 너라는 지칭은 안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 (...)

정 영 학 그거 (...)

유 동 규 그걸 누가 이야기 안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김 만 배 아니,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화동인1 소송할거다 뭐할거다 이런 얘기했겠지.

유 동 규 그런데 그게 내꺼라는 걸 왜..

김 만 배 아니, 너라는 얘기는..

유 동 규 남욱이.. 남욱이 꺼.. 아니, 남욱이 지꺼라고 그랬으면 지꺼라고 이야기 해야지, 남욱이가 유동규 꺼니까 뺏어와야겠다, 그런 말은 안했을 거 아니에요?

김 만 배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그거는 형이 오바한 거고. 내꺼 아니라는 걸 알지.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아, 이거는 유동규 몫으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김 만 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유 동 규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이거를,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하다못해 김씨니, 유씨니, 다른 작은 유씨니, 김씨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일만 하게 만들어놓고.

김 만 배 아, 여기도 그래, 동규야.

유 동 규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사공들이 많아진 거는, 그런데 왜냐면 사고 때문에 입막음에 대한 사공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조심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정 영 학 회사 내부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유 동 규

그거는 형님, 암호 같은 겁니다. 일중에.
 나는 어디부터 생각 되냐면, 국정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이 시점이 언제쯤일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길래 의아했어요.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분명히 불꽃이 어디선가 터질 텐데 왜 스파이크가 안 나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내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난 회사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볼려고 그랬는데, 그걸 오면서 할라고 그러는데, 형님이 그것까지 다 신경쓰고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가 팀 한 거는 좋았던 게, 다들 역할들을 다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 정리됐고. 했고.
 그런데,

김 만 배

동규야,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유 동 규

예.

김 만 배

형이 얘기할게.
 뭐냐면, 이.. 인제, 재창이는 뻘찌 붙어서 돈 한 150억 가져갔어.

유 동 규

120억?

↓
 정재창

김 만 배

150억.

정 영 학

150억. 150억.

유 동 규

그런데 재창이가 그걸 150억 가져간 게 뻘찌를 붙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정재창

2020-10-30

김 만 배 완전히 요건 재창이가 너희집 앞에 가서 협박한 부분도 있고,

유 동 규 우리집 앞이에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우리집 앞에 온 적 없는데요?

김 만 배 아니, 너네집 갔대.

유 동 규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봐, 그 새끼. 불러봐.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지 마.
그리고 또,

유 동 규 아니, 그 새끼..

김 만 배 아니, 형 얘기 좀 들어봐~ 아이~

유 동 규 좃만한 새끼가 진짜.

김 만 배 그리고 형이 기준을 세운 부분이 뭐냐면, 재창이가 호반의 정보를 훔쳐온
걸 가지고 우리는 입찰에 당첨됐다는 명분을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커.
그런데 처음에 남욱이가 50억을 내기로 하고 영학이가 20억을 내기로 했
어. 아, 들어봐~ 화내지 말고.

유 동 규 이 새끼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로 보이나. 병신 같은 새끼가.
위례에 가서 돈 처먹은 거 다 토해내고 싶어가지고 걱정했나, 이 새끼가.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재창이가 밀고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
정리
- 35 -

김만배

정영학

* 1차 - 3점
- 정재창이 여자한테
사건은 의기투합

너 화내지 마. 내일 전화해. 개한테 할라면.
자, 그런데 내가 고의적으로 재창이가 호반의 정보를 가져왔길래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재창이 때문에 당선됐다는 기준을 만드느라고 재창이를 남욱이가 50억 내고 영학이가 20억 내는 구조로 만든 건 맞아.
그런데 재창이가 더 밀고 들어왔고. 더 밀고 들어와서 뭐냐면, 자기 지분이 원래 3분의 1이었었는데 그게 너무 적다. 맞지?

정영학 예.

김만배 응. 3분의 1이었었는데 너무 적다 이거야.
자 그러면 3분의 1이었었는데, 그러면 그 지분이 어디로 갔어?
남욱이가 가져간 거야. 그 위례 것 하고 바꾼 거야.
위례가 얼마 이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위례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재창이는 계산하기에 자기가 위례에서 번 돈 플러스 70억 하면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약한 고리를 파고 들어왔겠지.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대장동 지분을 재창이 꺼를 산 사람이 누구야?

유동규 개잖아요.

김만배 남욱이지.

유동규 남욱이잖아요. 정영학

김만배 남욱이가 내야지. 애 말대로.
그런데 그냥 지분이 지분대로 하면 나는 재창이하고 상관없으니까. 응?
그런데 아니면 지분대로 하면은 만약에 120억을 달라면 형이 60억을 내고, 개가 한 40억을 내고, 니가 한 30억 내면 되는 구조야. 그지?

유동규 내가 정재창이한테 뭘 잘못했죠?

김만배 아니,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 사사로운 얘기야.
이미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야.

*1차-14쪽
정재형 3억 네블리공
(10유동규)

유동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김만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얘기를.

유동규 그런데 왜 뭐, 내 집 앞을 온다는 등.. 왜 그러죠?

김만배 아니, 재창이 돈을 받았대매?

유동규 예전에 처음에 3억 받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 2013. 4 ~ 2013. 8. 12. 까지 341백만원

김만배 응, 응. 그 얘기 가지고.

유동규 그거 가지고, 그건 위례 내가 줬잖아요. 돈 벌어먹었잖아. 근데 왜? 그 다음에 계산할 게 또 남았나?

김만배 아니. 아니 인제 그만 얘기해.

정영학 일단 그거는 잘 저도..

김만배 그러니까 그만해 이제. 그 얘기는. 남욱이..

정영학 저는 돈 내봐라 그래서 돈 내봤구요, 그 중간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동규 아니 그런데 위례. 위례 관련돼갖고 전부 해줬고.
그다음에, 대장동 갖고 나한테 따질 문제가 아닌데 왜 나한테 따져?
남욱이하고 정 사장하고 같이 따져야 될 문제지.

↳ 정재형

김만배 아니, 너.. 너 얘기는 안해.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된 거야. 팩트는. 팩트를 풀면.
그러면 저 이.. 객관적으로 남욱이가 25% 가져갔으면 25%만큼 계산하면 돼. 그런데 25% 만큼 계산 안하니까 문제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영학이랑 너랑 반반씩 나눠. 오케이 했어. 16%를. 그러면 본인도 내면 되지.

선배당 후공제로 해가지고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은 남욱이야. 가장 손해본 사람은 나고. 나지? 응? 그런데도 그냥 오케이 했잖아.

정영학 다들 비용부담이 사실 큼니다.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유동규 음, 음.

정영학 그런데 인제, 그걸 다 떠나서 인건비 나누는 거는 맞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인건비 나누는 거는 나눠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 것 다 떠나서. 그 이전 거는 이미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뭐, 다들 서로 많이 부담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은 제일 많이 본 것 같긴 합니다. 남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작년에 이렇게 뭐 정채창이 비용 부담하는 거, 공통비 이렇게 부담하는 거.

그 측면에서는 남 변호사는 부담이 제일 적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공통비, 저도 사실은 저도 제일 부담하기가 싫었습니다. 금액이 비율로 치면 저는 굉장히 큰 비율의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3분지 1만 하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그래서 제가 제일 반대를 했습니다만,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유동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김만배 그리고 처음에 생각보다도 이..

유동규 너무 근데 많은 남은 거 아닌가?

김만배 애가 많이 남겼지. 내가 이렇게 남기면 안 된다고..

정영학 아, 아닙니다. 그건 설명이..

김 만 배 응? 애가 많이 남겼지. 형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애가 벌었어, 돈을. 왜냐면 처음 예상보다.

유 동 규 전체 다, 전체 다 얼마 남았어요?

정 영 학 5천개.

유 동 규 5천개?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저스트예요? 아니면은 얼마예요?

정 영 학 플러스 5천 한 3,4백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는 얼마 와?

정 영 학 2,500개.

김 만 배 2,500개.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 왔어?

정 영 학 1,890개, 1,500개. 3,300개 배당이 됐습니다. 2,000개 남았습니다.

김 만 배 우리한테 돈이 온 게 1,800억이 들어왔다고?

정 영 학 1,800개 플러스 1,500개. 3,300개 중에, 비율대로 이렇게 들어왔구요.
앞으로 들어올 게 한 2,000개 정도 남았습니다.

김 만 배 그런데 회사에 왜 돈이 없지?

정 영 학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 회사에?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돈이 없는데.

정 영 학 형님은 그 중에 일부가 A12 땅값에 물려있습니다. 그거는 입주할 때 200억 인가 300억 돌려받으시면 되구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땅값도 물려.. 땅값에 물려있는 게 있고. 그거는 입주 때 다 상환이 되면 들어오는 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 동 규 그게 지금 A12 블록?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그런데 내가 선오한테 물어보니까,

유 동 규 A12블록 땅값이 전체 얼마야?

정 영 학 2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계약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유 동 규 전체 2천억인데, 계약금을 얼마 냈어요?

정 영 학 350억 정도 들었고, 2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실제 땅값은 200억, 부대비용까지 350억 들어갔습니다.

유 동 규 누구한테 빌렸어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은행에다가?

정 영 학 네, 네, 네.

유 동 규 아, 은행에서 담보로?

정 영 학 다 빌려서 그건 갚았죠. 따로 형님 배당 받은 돈으로.

유 동 규 350억 갚고. 그러면 지금 땅값에 물려있는 게 얼마 물려있어요?

정 영 학 형님이 한 4,5백개 물려있는 걸로..

유 동 규 500억 정도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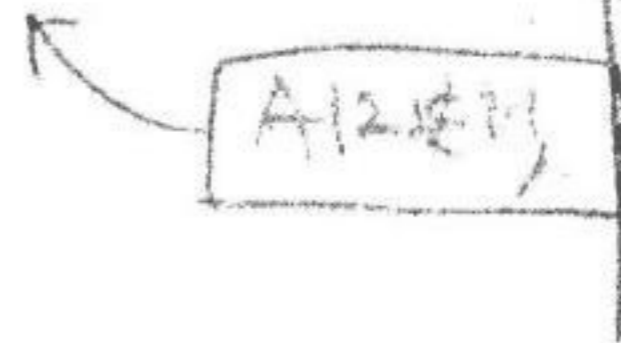
정 영 학 예. 4,5백개.

유 동 규 400개로 따지면 550억이네. 200억 나간 거에다가 350억 하고.

김 만 배 아, 그래서 돈이 없구나.

정 영 학 그래서 물려.. 이거는 투자개념이고.

$$200억 + 150억 = 350억$$



유 동 규 그러니까 550억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정 영 학 그건 분양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유 동 규 아, 이미 분양이 끝났다?

정 영 학 예, 예.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유 동 규 아. 정해져 있는 게 지금 550억 물려있는 거네?

정 영 학 예, 예.

유 동 규 그러면 들어간 원금이 550억이면 이자.. 저기 저기, 거기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정 영 학 그.. 물론 뭐 이익은 더.. 예.

유 동 규 그러면 한 얼마 정도까지 예상돼요? 세부적으로.

정 영 학 그거는 정산해 봐야 압니다만, 꽤 이익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비용 떨고 뭐하고 정산 해 봐야 압니다.

유 동 규 정산하면 그러면 이득은 조금씩 남겠네. 550억 원금이니까. 거기다가 인제 그..

정 영 학 플러스알파.

유 동 규 플러스알파 이득까지 들어오면은..

정 영 학 예.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인제..

뉴스타파

뉴스타파

유동규.
↑ 김만배

김만배 동규 오해는 아니지? (형이 돈 빼먹는다고.)

유동규 아 형님, 왜 오해를 합니까.

정영학 하하. 그냥..

유동규 그거 지금 그게 인제 우리가 인제, 그게 언제 정산이 돼요?

정영학 아파트 입주 될 때니까, 내년 한 5월.

유동규 내년 5월에?

정영학 예. 그렇게..

유동규 2021년 5월?

정영학 예. 2021년 5월.

유동규 2021년 5월.

김만배 아, 그게 550억이..

정영학 여기에 물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만배 돈이 어디 갔나 했지, 나는.

유동규 하하하~ 형님은 아니..

정영학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저도 잘 모르구요.

김만배 나는 정산해본 적이 없어.

뉴스타파

뉴스타파

유 동 규 내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형님?

김 만 배 아니 아니 아니야. 나는 뭐..

유 동 규 형님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 만 배 남욱이가 그러더라고. 자기 돈이 350억을 더 배당받을 게 있대.
그래서 내가.. 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내가..

유 동 규 2천억 받고 지금 2천억 남았다면서요. 그 다음에 할 게. (...).
2천억 남았다고 그러면,

정 영 학 충분합니다. 먹고 살기 다들.

유 동 규 다들 먹고 살기 괜찮아.

김 만 배 2천억이. 돈이. 그지?

정 영 학 예. 남 변호사 500억이 더 가거든요. 충분합니다.

유 동 규 남 변호사한테 500억이 나가요?

정 영 학 예. 앞으로.

유 동 규 아이구~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없고 그것만 있어도 먹고
사니까.

정 영 학 그냥 공통비 부담해도 됩니다.

김 만 배 아니면 내가,

정영학 다 해보면 다 본인이 많이 부담한 것 같은데요, 조금씩 양보해서..

김만배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데, 25%가 16%보다는 공통비를 덜 냈어.

유동규 그러네요.

김만배 애는 은행 한 사람만 한 거고.

유동규 형님, 이거 해서 이것저것 해갖고 돌려주세요. 하하하.

정영학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과분해서..

김만배 영학이, 나도 오해를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유동규 아무튼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우리 정 회계사가 있으면서 하나까
요.

김만배 내가 얘기할게. 애는 저 이.. 자기것 안 내놔. 근데 남의 것 욕심 안내.

유동규 그러죠.

김만배 그런데 자기 것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내놔. 자기가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
안 속여. 그런데 남욕이는 자기 것도 안 내놓고, 남의 것 뺏어.

유동규 개 원래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김만배 응.

유동규 개가 되면 그냥 저기 어릴 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김만배 그럼 내가 현재 회사에서 한 400억 정도를 빌려있어. 그거 갚아야지.
배당 받아서 내는 게.

정영학 네. 저도 그게 제일 부담입니다.

김만배 그렇지. 나는 완전히 개털 되는 거네.

정영학 사실 저는 머리 굵적굵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담이 제일 크시겠다구요. 재무제표 이걸 속일 수도 없는 거고, 나타난 부분인데, 그 가지급을 상환하려면 한 400개는, 한 700개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배당세액 공제 하기 때문에 700개 정도.
그거는 뭐 딴 데서 좀 버시든지..

김만배 아니 그건 몰아서 될 일이 아니야.

정영학 예. 그래서 배당 처리 좀 하셔야 되고.

김만배 그러면 2천 한 2,3백개 되면 700억 하면은..

유동규 그 자체가,

김만배 세금도 내야 되는 거야.

유동규 세금 내야 되잖아요. 2천 한 3백개 되는 거에서 세금 내고.

정영학 그다음에 또 잊그제..

유동규 법인세가 얼마예요? 300개면 법인세가 얼마가 돼요?

정영학 법인세가요 지금 그.. 일부를 미리 받아서 다행이구요. 내년부터,

유동규 지금 형님은 저기 저 상계처리한 사람들 하나도 없죠?

정영학 네.

유 동 규 그죠?

정 영 학 비용처리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 동 규 비용처리 된 게 하나도 없네.

정 영 학 그다음에 내년부터 지금, 기재부 지금 요즘 세법 개정안이 정말 불리합니다. 배당을 받는 데에서는 아침에도 지금 김영범 기재부차관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를 무조건, 법인세 내고 50%는 무조건 배당으로 봐서,

유 동 규 예? 뭘 말이야?

정 영 학 법인세를 내고,

유 동 규 법인세를 냈는데,

정 영 학 남은 50%를 무조건 강제배당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 동 규 강제배당을 시키겠다고?

정 영 학 네. 배당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유 동 규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겠다고는 거예요?

정 영 학 예.

유 동 규 법인세 뽑아들이고,

정 영 학 나머지 50%는 배당으로 한 걸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 매년 세금부담이 한..

유 동 규 그러면 75%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냐?

정 영 학 75%까지는 아니고, 실 세금부담이 한 40%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유 동 규 아니, 법인세 지금 세율이 어떻게 돼?

정 영 학 22%입니다.

유 동 규 아, 22%예요?

정 영 학 예. 그다음에 나머지,

유 동 규 예를 들어 천억이면 220억이 세금이네?

정 영 학 예, 맞습니다.

유 동 규 220억 세금 내면, 나머지 700..

정 영 학 나머지 780억 남았.. 780억 남았으니까,

김 만 배 그거야. 780억에 50%를..

정 영 학 반을 나눠서. 예. 반을 나눠서.

유 동 규 거기에 780억에 반을 나누면,

정 영 학 390억. 390억.

김 만 배 390억에,

유 동 규 390억. 390억에,

정영학 배당으로 매기기 때문에,

유동규 배당으로 매겨갖고 회삿돈 390억 놔두고, 390억은 배당을 시켜버린다?

정영학 배당하든 안하든 그냥 개인한테 배당세액을 매기겠다.

유동규 그러면 한 40 몇% 되겠네.

정영학 더하기 35%.

김만배 40 한 6,7% 돼.

유동규 그러니까 50%니까. 그지?

정영학 금액으로 따져보면 40% 정도 됩니다.

김만배 자정 회계사, (...) 하나 내가 물어볼게.

정영학 그런데 형님은 구조가 괜찮습니다. 형님은 빠져나오게 짜놨구요. 저하고 남 변호사만..

유동규 어떻게?

정영학 형님은 잘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부담이 50%까지는 아닌데, 20%까지는 아니 추가적으로 22% 내고 추가로 20% 내야 되는데, 형님은 10 한 3,4%.

유동규 어떻게?

정영학 그건 제가..

김 만 배 뭐 나중에 그거는 해보고.

정 영 학 그래서 실제 35% 정도 부담이시구요.

유 동 규 그렇게 가능해요?

정 영 학 저하고 남 변호사는 45% 부담입니다.

김 만 배 아, 형은 이거지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자회사를 천화동인을 해냈기 때문에,

정 영 학 만들어냈기 때문에 배당을 내려도 됩니다.

김 만 배 내려서. 현금배당이기 때문에.

정 영 학 현금배당 내리고 거기에 25% 맞아야 되는데요. 안 내린 건 아니고, 22%에서 추가적으로 13% 정도는 내실 것 같고, 22%에서 추가로..

김 만 배 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규한테, 뭐 동규 지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정 영 학 예, 예.

유동규 [성남대치리사 기획본부장]

김 만 배 만약에 이걸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내가 유동규가 만약에 차렸는데 그거를 내가 비싸게 사서.. 그 할 수 있어, 없어?

①아

↓
회사설립

[(주)유원홍당스]

정 영 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 만 배 그러면 가장 좋은 방안은 뭐야?

정 영 학 잘 모르겠습니다.

* 12차 - 11, 12차

- 유동규 약속대가

수령방안 ①, ②, ③

Q4

김 만 배 저기를 주면 어때? 증여로 주면, 문제가 돼? 세금 내면?

유 동 규 아니, 그건 세법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그거는 법적문제죠.

정 영 학 그건 법적으로 해 봐야죠.

유 동 규 법적문제이기 때문에 그 저기 정 회계사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예요, 형님.

법적으로 따져서 이게 뭐냐면, 이게 증여나 상속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 이 만약에 잘못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냐면 비상장 주식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 따져 보면 돼요, 형님.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김 만 배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총 배당이 얼마 됐어?

정 영 학 손익적으로요?

김 만 배 응, 응.

정 영 학 1,2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 만 배 1,200개.

정 영 학 잠시만요.

유 동 규 3,000..

정 영 학 1,700개. 1,700. 1,700개.

유 동 규 1,700개.

김만배 1,700. 세금 내기 전에?

정영학 세전. 세금은 22% 떼었기 때문이에요, 340개 정도 됩니다.

김만배 340개. 그러면 1,000 한 300개가 들어왔다고 쳐. 그지?
그러면 한 550억이 밀려있고, 형이 400억 정도를 빌려서 비용을 처리했어.

가치증 추 사용

정영학 그다음에 나머지,

김만배 나머지 그래서 있는 게 한 그 정도 있는 거지.

정영학 한 500개 있으시겠조 뭐.

김만배 회사에?

정영학 예.

김만배 아니, 한 180억 돼.

정영학 투자하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김만배 아니, B1 그때 계약금 뭐 그런 거.

정영학 나가있는 것 같구요.

김만배 응. 그래.

정영학 거기에 한 200 몇 십억 물려있고, 저기 350억 물려있고.

김만배 그러니까 그게 550. 그게 다야, 돈이.

정영학 하여튼 뭐..

김만배 배당금
 현금까지 1,700억
 세금 (340억)
 B1 + A12분리 (550억)
 대어금 (420억)

A12분리

김 만 배 응. 한번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나는 투자한 거보다 한,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게 한 70개 넘게 나가있고.

정 영 학 뭐, 그냥 큰 돈은 그거구요. 가지급이신 거 같고.
그 규모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 만 배 가지급이 그거야. 400개.

정 영 학 얼마 돈이 없으시겠는데요?

김 만 배 없어. 회사에.

정 영 학 세금 내고.
솔직히 저도 세금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고 다닌 거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가 남는 겁니다. 앞으로.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현덕이하고 선오한테 총 우리 회사가 끝나고 세금 다 제하고
한 얼마 정도.. 형 가지급금 갚기 전에 얼마 정도냐 하니까, 한 1,500개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

정 영 학 그렇죠. 세금 있고요 일단.

김 만 배 응. 내년에 배당 받는 게 한 800개 정도고.

정 영 학 네. 세금 부담이 큼니다.

김 만 배 응. 그래서,

정 영 학 그다음에, 그 350개 중에 비용 써버린 게 꽤 됩니다.

김 만 배 그래서 내가 그러면 400개를 갚으려면 한 800개 풀로 친다 쳐.

김 만 배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충당해야 돼. * 13억 - 5억 정도
 모자라는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50억 정도고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얼마야.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응?

정 영 학 50억씩입니까? 50억입니까?

김 만 배 아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최재경, 김수남, 곽상도, 권순일, 홍선근.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박영수, 홍선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정 영 학 다섯.. 뭐 50개 곱하기,

김 만 배 60억. 그러면 자, 최. 최재경, 박영수.

정 영 학 300억이죠.

김 만 배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응? 그러면 얼마야?

정 영 학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김 만 배 300..

정 영 학 20.

김 만 배 320이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320이면,

26
27. 이=속=2=중
320억
 최재경 50 홍선근 50
 박영수 50 윤창근 15
 곽상도 50 강한구 5
 김수남 50
 권순일 50 = 320억

정영학 320억.

김만배 응, 320억. 윤창근. 아니, 다시 한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권순일, 홍선근. 왜 모자라지, 사람이? 써서 해봐.
김수남, 윤창근, 박영수.. 윤창근 15억. 윤창근. 그다음에..
320억이네. 그지?

정영학 예. 50..

김만배 320억. 응? 320억이면, 100억 남는 거네. 저기는. 그지?
그러면 저걸로 그거 뭐야, 저것까지는 되네. 이기성이 것까지는. 그지?
내 말이 맞지?
김수남. 홍선근. 맞지?

↓
(주)더감, 더핀어사.

정영학 예. 50개씩입니까?

김만배 50억.

정영학 50개씩?

김만배 응. 200. 300. 320.

정영학 320. 원래 이게 사실 200 몇십억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 정산을 해보면, 남는 거는 일단 갖고 계셔보시고.

김만배 322억이면 이기성 것까지 여기서 해결을 하니까 괜찮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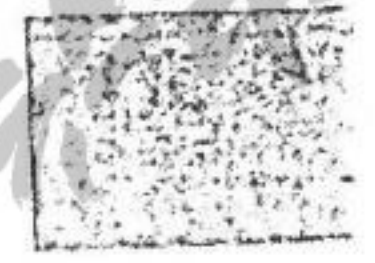
정영학 네, 네.

김만배

김만배 그지? 420. 응?

그럼 비용만 쓴 것 190억만 하면 하는데, 거기서 니가 니네들이 50억을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뭐야..

↓
김앤락은이스



→ 클래밍 대비안
(비밀해정취락)

김 만 배 그건 따블이.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
겠습니다. 음?

정 영 학 (...) 현재.

김 만 배 그거. 그게 그거야.

정 영 학 그쪽에 (...)

김 만 배 응. 그 부분이 그분은 (...)

→ 클래밍 대비안
(비밀해정취락)

정 영 학 그런데 형님이.. 아니 뭐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소송이 되면.

김 만 배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아. 응? 계속 그렇게 되는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한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3)

정 영 학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

김 만 배 그럼. 왜냐면 (...) 약속은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
(...) 이러더라고. 그걸 제가 (...) 하는 것 (...)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게,

정 영 학 말이 안되죠.

김 만 배 (...)

47252

3201

그러면은 한 400개는 다시 갚는 거니까, 한 1,200개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인제 영학이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지? 그거 제하기 전이야. 그지?

영학이는 알어. 내가 얘기했어, 동규야. 누구를 좀..

정 영 학 저는 그냥 지나가는..

김 만 배 응. 왜냐면 세무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유 동 규 그거는 저기 그,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김 만 배 응.

유 동 규 그럼 그건 세금처리 되잖아요.

김 만 배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지.

유 동 규 그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들어온 돈에서 주면 되니까, 여기서도 상계처리가 된다는 거죠.

김 만 배 응, 응.

박승현 (박영수 고생장의 딸)

유 동 규 비용처리가 되잖아요.

김 만 배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수현이하고 곽상도는.

유 동 규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그리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으로.

김 만 배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곽병래씨.

유 동 규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김 만 배 아.. 최용석 변호사는 지도 연장 안해준 것 때문에 좀 섭섭했는지 연락도 없더라고. 그런데 많이 받았지 뭐.

정 영 학 많이 받았죠.

김 만 배 사람들 참 욕심 많아. 그지?

*13차-55쪽
각상도 : 각상회
통해서
50억 수령함

정 영 학 예.

↳각상도

김 만 배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정 영 학 각상회
그냥..

김 만 배 며칠 전에도 2천만원 (...)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문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한 사람은 너보다는 (...)

↓
양완범인부

정 영 학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김 만 배 응. 골치 아파.
형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잘 대처할 거야. 잘 대처하고.
성문이가, 너 고집이 쎄데 자꾸 저거를 인허가 받은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인허가 받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냥 현재 상태에서 팔든지, 인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해야지.
꼬리표가 붙는 심의가 결과가 나오면 되게 힘든 거야.

- 곽상도: 김만배에 돈 요구함

2021. 4월 말 50억지급
- 리셉션인; 곽상도
산재함의유

김만배 그건데, 아들은 회사에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니 곽상도

→ 곽상도

유동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곽 선생님은.. 곽 선생님도 변호사 아니에요?
지금 현역이잖아요. 그럼 정치자금법에 걸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문제네. 그거가.

김만배 아니, 아들한테 주든 뭐든.

유동규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 아들한테, 아들이 그렇게 받아갔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김만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형이 인제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수현이하고 곽상도.. 뭐 아들은 여기에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에. 5억씩 넣었어. 그지?

유동규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곽 선생은.

김만배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유동규 직원들한테도 보너스 줬다?

김만배 응.

유동규 많이 남아서 애네 줬다?

김만배 응. 최고 조금 가져가는 사람이 5억이야.

유동규 뭐 그렇게 하면야..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만배 왜 문제야? 사번 1번인데. 공모하기 전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

데. 응?

유 동 규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문제는 변호사비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유 동 규 변호사비로 처리 못하니까.

김 만 배 응, 응. 변호사가 아니니까.

유 동 규 변호사들이야 변호사비로 주면 되니까. 자문료로 주면 되니까.

김 만 배 그럼. 응, 응.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범조인이야.

유 동 규 나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놓을 걸 그랬나. 하하하하~ 공부 피 터지게 해가지고. 하하하.

김 만 배 근데 나는, 동규야, 나는 그래.

정 영 학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유 동 규 아니야. 어렵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

김 만 배 나는 남욕이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남욕이 손 더 비틀고 싶은 생각도 없어.

유 동 규 그럴 리야 없죠.

김 만 배 응. 그리고 영학이 비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유 동 규 고생했네요.

김만배 난 솔직히 영학이,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뺏겨서.

유동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김만배 16%의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데 남욱이는 25%의 의무를 해야 돼. 그런데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인건비에서의 25%를 내야 된다고. 그게 25야.
만약에 내가, 나는 양보한 게 되게 많아, 사실은 양보한 게 많은데,
이거를 욱이가 안 지키면 나는 욱이 배당 안 줄 거야.

유동규 누구 한명만 안할 수는 없어요, 형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김만배 응, 응. 아니, 왜 없어? 차등배당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배당해주고,
개는..

유동규 다른 사람 못해요. 법적으로 안돼요, 형님.

김만배 왜 안돼?

유동규 됩니까, 그게?

정영학 일단 그..

유동규 됩니까?

정영학 (...)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만배 그렇지.

정영학 안 주면 주주는 기다리다가 소송하겠죠. 소송하면 쥐야줘.

유 동 규 그러니까 결국은 줄 수밖에 없어요.

김 만 배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데, 안준다 이거야. 소송하라 이거야.

정 영 학 그 사이에 괴롭죠. 세금 내야 되고,
소송하면 100% 이겁니다. 주주가. 배당이 되게 (...)
그런데 언제 그 소송 끝날 때까지 세금 못 내면 계속 괴로울 수 있으니까.

유 동 규 그 괴롭히는 거지; 그냥.

* 12차 10
* 14차 3
* 13차 58

김 만 배 아니 그리고 내 동생 시켜서 실소유주 관계를 해달라고 소송 넣으면 되는 거지. 10년 갈 텐데. 응?
내 동생이 주인이었잖아. 맞아, 안 맞아? 정 회계사. 그지?

정 영 학 예, 예.

김 만 배 응. 나는 욕심 하나 안 부리고 그대로 약속을 지켰잖아. 그지?
모두 다 내 동생 앞으로 돼 있었는데.
내가 욕심 부릴 수 있었으면은 저거를 그대로 다 줬겠냐. 응?
뭐 돈 보고 욕심을 낸다고 그래, 형이.
객관적으로 맞아, 안 맞아? 정 회계사. 응?

정 영 학 저는 뭐 뭐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 다 떠나서 인건비는 부담했습니다.

김 만 배 너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규야.

유 동 규 예.

김 만 배 응? 아, 개 논리야 개 논리지 될.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잖아.

유 동 규 나중에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보세요, 형님. 얘기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순리적으로 다 풀면 되죠. 지금 같이 (...) 하고.

정영학 좋게 잘 푸시는 게..

유동규 잘 좋게 풀어야죠, 형님. 그거 자꾸 꼬아가지고요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좋을 것 없어요, 형님. 풀어서 그냥 가면 돼요.

김만배 아니, 형은 개하고 안 싸워. 무슨 어린애처럼 싸워.

유동규 그러니까요.

김만배 그냥 조치를 할 뿐이지 무슨..

유동규 아니, 결국은 그게 형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풀어서 가면 돼요.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 상황이 뭐냐. 그리고 상황들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로 풀면 되죠. 그 뭘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김만배 그리고 내가 영학이 어거지로 영학이 것 뺏을 수도 없어.

유동규 아니, 왜 뺏어요? 뺏으면 안 되죠. 절대 뺏으면 안 되죠.

김만배 그럼.

유동규 그리고 저기, 5년 전의 일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정영학 아니 뭐..

유동규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술이 과해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만배 너 새끼야 남육이 쥐어 팠래다가 팠대매.

유 동 규 아유. 아무튼 뭐 미안합니다.

정 영 학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유 동 규 5년 전에 저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형님. 전 자리에서.

김 만 배 남옥이가 너 부랄 터트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유 동 규 몰랐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형님. 하하하.
그 친구도 아이고.. 애들도 그렇고.

김 만 배 그리고,

정 영 학 그.. 그냥 다들 조금씩 양보하고,

유 동 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정 영 학 본인이 제일 억울한 것 같은데요,

유 동 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 영 학 내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양보 많이 하셨고.

유 동 규 예, 맞아요.

정 영 학 저도 양보한다고 했고.

김 만 배 아니, 그건 형이 알아.

정 영 학 예. 제가 그렇다고 공통비 120개 다 낼 수도 없고.

김만배 그건 뭐 내 어거지로 우겼던 거고. → 13차 29

정영학 그다음에, 재창이 것도 제가 부담 많이 했구요.
원래 재창이 거는 (...) 할 건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는.

김만배 남욱이가 지분을 가져가니까 남욱이가 해야지.

정영학 그 남욱이 지분이 많은 거고.

유동규 음. 음.

정영학 그래서 두배가 된 거거든요.

유동규 음음, 그렇지.

김만배 사실 조우형이도 남욱이가 준 거잖아. 남욱이 꺼에서.

정영학 사실 그렇게 보면 그 비용들을 뭐 좀 지분이 같았다면 제가 할 텐데요..

유동규 우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형이 뭇도 자기가 한 것 처음에 상계해준 거죠.
10% 할 때 그때 상계해준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남욱이도 수속도 아마 밟고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싼 똥
은 항상 자기가 치운다.

그리고 거기는 참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저 공사한 거는.

정영학 일단 뭐 그거는 뭐..

유동규 개는,
↳ 김민경.

정영학 상관없습니다.

김만배 그거는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김만배 응. 니가.. 다 줄 수 있대. 그래서 '야, 니가 어디다 썼어?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민용이도 100억' '줬어?' 그러니까, 아직 안 줬대.
그러면 안 줬는데..

1034

→ 정민용 [성남대시퍼
전략사업팀장]

정영학 예..

김만배 응. 내가 싫은 소리 좀 했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랬더니 나보고 그거 어디야. 구리에 무슨 45층 성준이랑 들이 얘기하더
라고. 45층. 하나은행하고 저스트알하고 선진이 들어갔는데, 저스트알이..

정영학 형님, 저는 아시다시피,

김만배 아니 아니, 얘기 들어.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래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형이 영학이 대변인도 아니고'

정영학 그러니까요.

김만배 응. '그거는 영학이 만나서 물어봐. 형은 모르니까'
선진이 형님께 설계회사 아니네. 그래서, '나는 선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간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왜 모르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정영학 일단 그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만배 이리 와. 이리. 여기가 좋다. 여기가.

정민용
100억
-10차 2쪽
-10차 12쪽
-10차 21쪽
-13차 24쪽
-13차 62쪽

→ 김민정

정영학 지금 하여튼 저는 뭐 전혀.. 예.

유동규 개는 아예 그냥 배제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렇게 들어왔지만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정영학 아 예. 전혀 연락 없습니다. 연락 안 옵니다.

유동규 종합적인 부분도 그냥 아예 배제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영학 잘하셨습니다.

유동규 민용이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영학 예. 그래서 정변은..
↳ 정민용 [쌍둥이들, 권락사업팀장]

유동규 민용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됐습니다.

김만배 그거는 욱이가 정리하기로 한 거야. → 남욱 $\xrightarrow{160억}$ 정민용
↳ 남욱 $\xrightarrow{약속}$

유동규 예. 욱이가 형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 같은데요.

정영학 그게 인제 남변은 부담이 되는 거고.

김만배 그런데 그걸 해야지, 안할 수 있나. 내가 동규 하듯이. 응?

유동규 아니, 저를 하는 건 다르죠. 저를 하는 건.

김만배 그리고 여기 50개 뭉쳐져 있는 선생님 내가 하듯이. 응?

유동규 그걸 하셔야죠. 일단은.

* 3차 26.2억 약속고급 320억 각약
* 13차 54.62

김 만 배 응. 그거 50개 뭉쳐져 있는 거 안하면 사고 터지듯이. 응?

유 동 규 그거는 반드시 해결해야죠.

김 만 배 응.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응?

유 동 규 반드시 해결해야죠. 안하면 문제 되고요.

김 만 배 응.

유 동 규 정 회계사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

김 만 배 가게?

유 동 규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가세요.

정 영 학 아 예. 말씀 나누십시오.

김 만 배 미안해. 오라고 그래서. 미안해, 정 회계사.

정 영 학 아, 아닙니다.

유 동 규 다음에 한번 뵙시다.

정 영 학 예. 형님 가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저기 밀어서 화나가지고 너한테 막 예를 들어서 120개 (...)

정 영 학 형님 저 (...)

정영학

* 13차 21, 29

* 13차 35, 36, 62, 63

유 동 규 허허, 고생했습니다.

김 만 배 미안해.

정 영 학 아닙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김 만 배 응응, 내지마. 그냥 가.

정 영 학 예. 예. (끝)